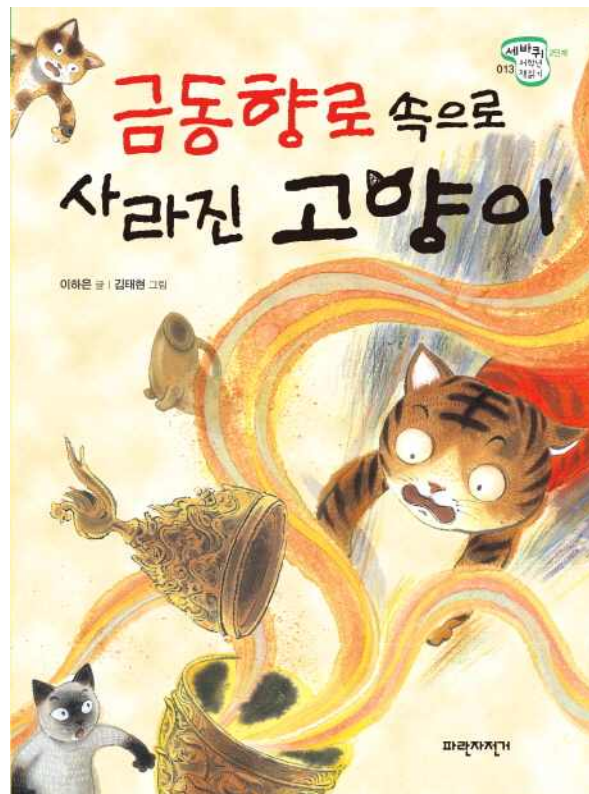


초등학교 3학년

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(교사용)

읽을 책



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

이하은 글 | 김태현 그림 | 파란자전거 | 95쪽

(학생용 활동지1)

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_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책 읽기		이름 :
책을 읽으면서 백제 역사 또는 유물, 유적과 관련된 낱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하고 아는 내용 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.		
쪽	낱말	관련된 배경지식과 더 조사한 내용
(예) 17쪽	사비성	충남 부여군 부여읍 지역에 있었던 백제시대의 성. 사비성은 백제 때 도읍 자체의 명칭이기도 하다.

(학생용 활동지2)

독후활동지_어휘 익히기	이름 :
◆ 어휘 익히기 다음은 「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」에 나오는 낱말들입니다. 그 뜻을 잘 읽고 이해한 다음,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. ① 호위 :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지킴. ② 자초지종 :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. ③ 산천초목 : 산과 내와 풀과 나무라는 뜻으로, 자연을 이르는 말. ④ 보초 : 부대의 경계선이나 각종 출입문에서 경계와 감시의 임무를 맡은 병사. 혼비백산 : 혼백이 이리저리 날아 흩어진다는 뜻으로, 몹시 놀라 났을 잃음을 이르는 말. ⑥ 위풍당당 : 품채나 기세가 위엄이 있고 씩씩함. 아래 각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위에서 찾아 번호를 쓰세요. 1) 무덤 안으로 쳐들어오던 적들은 벽에 생긴 그림자를 보고는 커다란 괴물인 줄 알고 ()해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. 2) 누그러진 호랑이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된 재룡이는 그곳까지 오게 된 ()을 얘기했어요. 3) 그 사람 옆으로 이마에 커다란 ‘王(왕)’자가 새겨진 집채만 한 호랑이가 산책하는 사람을 ()하듯 함께 걷고 있었지요. 4) ()한 호자 삼촌이 있는 힘껏 크와와왕 소리를 내질렀어요.	

(학생용 활동지3)

독후활동지_문장력 기르기	이름 :
---	--------------------

◆ 문장력 기르기

1) 아래 오른쪽 사진에서 ㉠, ㉡, ㉢ 부분을 각각 찾아 표시해 보세요.

㉠향로 뚜껑 위에는 봉황이 턱 밑에 여의주를 끼고 날개를 활짝 편 채 우뚝 서 있고, ㉡향로의 몸통은 연꽃잎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여러 동물들이 새겨져 있었어요. ㉢받침 부분에는 꿈틀거리는 용이 향로 몸통을 떠받치고 있었지요.



2) 다음 [예]를 참고하여 주어진 그림의 생김새를 자세히 묘사해 보세요.

[예] 호자는 정말 재미있게 생긴 물건이었어요. 호랑이가 앞다리를 세우고 뒷몸을 든 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통인데, 등 부분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었지요.



백제 연꽃무늬 기와는 _____



(학생용 활동지4)

독후활동지_독해력, 국어문법 실력 기르기	이름 :
◆ 독해력, 국어문법 실력 기르기 다음 「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」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 “할머니, 할머니! 재롱이가 왔어요!” 재롱이는 할머니부터 찾았어요. 할머니는 몸살이 나서 방 안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. “아이고, 우리 재롱이가 돌아왔구나! 그동안 ㉠어디에 갔더노? 할미가 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.” 할머니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재롱이를 따뜻한 품안에 꼭 안아 주었어요. 재롱이는 힘들었지만 돌아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했어요. “미안해요, 할머니. 이제는 할머니 걱정시키지 않을게요. 밥도 잘 먹고,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고, 씩씩하고 용감한 고양이가 될게요.” 재롱이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부비며 말했어요. “할머니, 어디 아프세요? 나 없다고 또 밥도 안 먹고 그랬지요?” ㉡쉬면 나올끼다. 니가 무사히 집에 왔으니 할미는 이제 걱정 없다.” 1) 윗글에서 느껴지는 할머니와 재롱이의 감정으로 알맞지 <u>않은</u> 것을 <u>모두</u> 고르세요. (답 2개) ① 반가움 ② 정다움 ③ 원망 ④ 후회 ⑤ 안도감 2) 할머니의 말 ㉠, ㉡을 각각 표준어로 고쳐 써보세요. ㉠ : _____ ㉡ : _____	

(학생용 활동지5)

독후활동지_독해력, 사고력 기르기	이름 :														
◆ 독해력, 사고력 기르기 다음 「금동향로 속으로 사라진 고양이」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 (가) 친구들에게 맞고 들어온 날부터 재롱이는 꼼짝 않고 집 안에서만 뒹굴거렸어요. 앞발을 접어 넣고 식빵 자세로 앉아 꼬박꼬박 졸거나 바구니 속에 처박혀서 잠만 잤어요. “재롱아,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좀 놀다 온나.” “싫어요, 할머니. 검은 장화와 삼색이가 얼씬도 하지 말라고 쫓아낸단 말이에요.” 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재롱이는 방으로, 마루 밑으로, 담장 아래로, 장독대 위로, 요리 조리 숨어 다니기만 했어요. “우리 재롱이가 씩씩해져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 좋을 텐데…….” 할머니는 눈만 뜨면 재롱이 걱정이었어요. (나) “인자 어디 가지 말거래이. 할미하고 오래오래 즐겁게 같이 살자.” 할머니 눈에 또 눈물이 그렇그렇 고였어요. “앞으로는 내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. 아무 걱정 마세요, 할머니!” 할머니는 마냥 아기 고양이 같았던 재롱이가 어느새 훌쩍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. (가), (나)의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.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세요. <table><tr><td></td><td>(가)</td><td></td><td>(나)</td></tr><tr><td>때</td><td>금동향로 속으로 들어가기 전</td><td rowspan="3">⇒</td><td></td></tr><tr><td>재롱이의 성격</td><td></td><td></td></tr><tr><td>할머니의 마음</td><td></td><td>재롱이가 훌쩍 큰 것처럼 느껴진다.</td></tr></table>			(가)		(나)	때	금동향로 속으로 들어가기 전	⇒		재롱이의 성격			할머니의 마음		재롱이가 훌쩍 큰 것처럼 느껴진다.
	(가)		(나)												
때	금동향로 속으로 들어가기 전	⇒													
재롱이의 성격															
할머니의 마음			재롱이가 훌쩍 큰 것처럼 느껴진다.												